

이형훈 제2차관,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참석해 AI 기반 보건협력 확대 논의

- 대한민국 AI 기본의료 전략 취지 담아 역내 보건협력 강화 -
- 아세안 보건협력 우선순위 담은 ‘아세안 보건전략 어젠다(2026~2030)’ 채택 -
- 「LEAP together: AI 기반 보건 및 사회」 한-아세안 공동선언문 제안 -
- 미국·중국 등 주요국 수석대표와 양자 면담 통해 AI 기본의료 협력 등 현안 논의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9월 10일(목)부터 9월 11일(금)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와 ‘제11차 아세안+3(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보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총 11개국

** ASEAN+3: 아세안 11개국+한국·중국·일본

먼저, 제11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는 ‘건강한 아세안, 공평하고 미래 대응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향한 동맹’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아세안 11개국 수석대표, 대한민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수석대표, 아세안사무국,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사무처(SEARO, WPRO)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여 역내 보건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향후 5년간 아세안 보건협력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한 ‘아세안 보건전략 어젠다(2026~2030)’를 채택하고 공동으로 이행·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고령화 대응과 건강수명 등 보건정책을 소개하고, 의료 인공지능(AI)을 통한 혁신과 확산

의지를 강조하면서 아세안+3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관계(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이형훈 제2차관은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의 공동의장으로서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체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협력 여건을 확인하고, ▲AI 기본법·디지털의료제품법 등 의료 혁신을 안전하게 확산시키고자 노력하는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며, ▲AI가 견인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아세안과 공동 협력하기 위한 「LEAP together: AI 기반 보건 및 사회」라는 다자협력 체계(프레임워크)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AI’가 ‘모두를 위한 건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의지를 반영한 공동성명문이 채택될 예정이며, 아세안 회원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형훈 제2차관은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수석대표와 양자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본의료 협력, ▲보건안보 국제협력, ▲건강한 고령화 등 보건분야 현안 의제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회원국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및 AI 기술혁신, 고령화, 감염병 위기대응과 보건안보 등 현안을 경험하고 있다”라면서, “아세안 관련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AI 기본의료 정책을 공유하고 확산을 지원하며, 앞으로도 아세안 역내 보건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1차 아세안+3, 제3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개요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심은혜 (044-202-2360)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금지현 (044-202-2363)



① 제11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공동의장국 : 말레이시아·중국)

- (일시·장소) '26.9.10.(목) 16:30~18: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참석) 아세안 11개국 및 한·중·일 보건장관 등 수석대표, 아세안 사무차장
- (주제) 보건의료체계 공조 아세안+3 전역의 혁신 확산과 건강수명 연장 실현
* (공통주제) 건강한 아세안, 공평하고 미래대응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향한 동행
- (우리측 주요 발표) △한국의 고령화 대응과 건강수명 등 보건정책 소개,
△아세안 감염병대응센터 설립 추진 지지, △보건 분야 협력 확장 등
- (결과문서) 제11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문 채택
- (주요내용) 아세안 전략적 보건의제 2026-2030에 기반한 협력 강조

② 제3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공동의장국 : 한국·말레이시아)

- (일시·장소) '26.9.11.(목) 10:45~12:4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참석) 아세안 11개국 및 한국 수석대표, 아세안 사무차장
- (주제) 더 스마트한 데이터, 더 나은 돌봄: 상호 연결된 한-아세안
보건의료 생태계를 위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혁신의 활용
* (공통주제) 건강한 아세안, 공평하고 미래대응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향한 동행
- (우리측 주요 발표) △한국의 AI 기본의료 전략 및 경험 공유,
△국가마다 상이한 AI 상황을 반영한 협력 확장 제안 등
- (결과문서) 제3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문 채택
- (주요내용) AI 기반 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미래 협력 제안